

# TDB 경기동향조사 (전국) — 2017년 4월 조사 —

## 수출과 생산의 호조로 3개월 연속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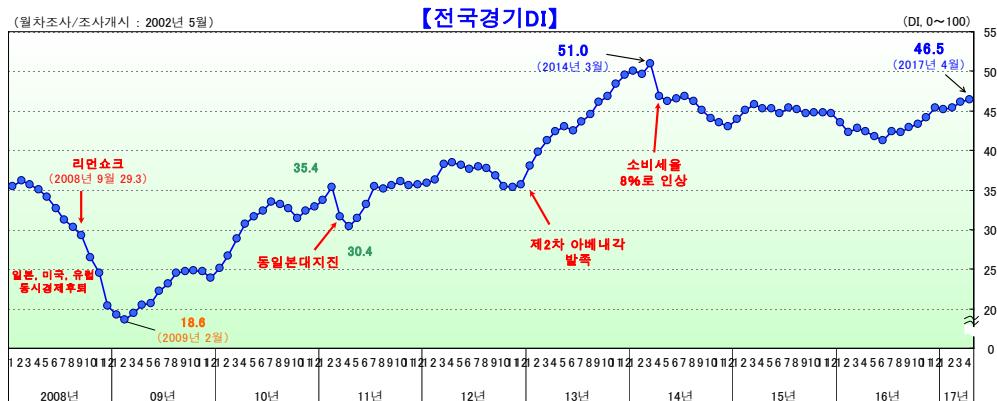
~ 개인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 ~

(조사대상 2만 3,920사, 유효회답 1만 29사, 회답율 41.9%,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 포인트

- 2017년 4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46.5가 되어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수출과 생산의 호조를 바탕으로 한『제조』의 개선이 영향을 미쳐 회복이 지속되었다. 향후의 경기는 개인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수출과 생산의 지속적인 호조나 공공공사의 증가가 호재료가 되어 완만한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제조』『운수·창고』『서비스』『농·임·수산』 등 8개 업계가 개선,『건설』『소매』 2개 업계가 악화되었다. 반도체관련이나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이 호조로, 관련된 업종의 체감경기가 상향되었다. 또한 인력부족이 심각화되는 한편, 계약가격의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운수업이나 수요가 증가한 인력알선 등의 체감경기가 개선되었다.
- 『홋카이도』『키타칸토』『큐슈』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츄고쿠』가 악화되었다. 공공공사의 증가가 각지의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플러스재료가 되었으며,『큐슈』에서는 지진피해부흥사업이나 관광업의 회복 등으로 7개월 연속으로 전국 10개 지역 중 1위를 점하는 등 높은 수준으로 추이하였다.

(월차조사/조사개시 : 2002년 5월)



2017년 5월 8일  
주식회사 테이코쿠데이터뱅크 산업조사부  
<http://www.tdb.co.jp/>  
경기동향조사전용HP <http://www.tdb-di.com/>

### < 2017년 4월의 동향 : 회복이 지속 >

2017년 4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46.5가 되어 3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4월의 국내경기는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인한 반도체 등의 전자부품이나 자동차관련부품의 중국 및 미국향 수출회복세가 선명한 가운데,『제조』의 개선이 체감경기 전체를 끌어올렸다.『운수·창고』는 가격인상의 고조에 더불어 수출입 양의 증가나 대형연휴를 맞아 활발화된 화물이동이 기여하였으며, 인력부족 대책이나 시스템 투자수요증가의 영향으로『서비스』가 8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어 전월에 이어 10개 업계 중 유일하게 50대 포인트를 보였다. 또한 쿠마모토지진으로부터 1년이 경과, 부홍수와 관광관련의 복상이 지역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졌다. 국내경기는 수출과 생산의 호조를 바탕으로 한『제조』의 개선이 영향을 미쳐 회복이 지속되었다.

### < 향후 전망 :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 >

향후에 대해서는 발족 후 100일이 경과한 미 트럼프정권의 통상정책의 향방과 FRB의 금리인상, 유럽의 정치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국내에서는 인력부족의 심각화나 코스트부담의 증가가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요소인 반면, 고용·소득환경이 개선되는 가운데 임금총액의 증가가 경기회복의 실마리가 되는 “개인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수출 및 생산의 확대지속, 도쿄올림픽에 대비한 건설투자의 본격화나 보정예산집행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향후의 경기는 개인소비의 본격적인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수출 및 생산의 호조세 지속과, 공공공사의 증가가 호재료가 되어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